1-7-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창세기 12:1-3
말씀제목: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축복과 자칭 유대인들이 받는 저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 천 년이 지났을 때 바빌론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그에게 복을 주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것이며 그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의 자손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깨닫고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갈 3:8-9, 13-15)

이 말씀을 하신 후 모든 민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갈 3:16)

또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430 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오히려 율법을 더 중히 여기면서 율법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이제 중보자는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니라."(갈 3:17-20)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니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갈 3:21-25)

마침내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죄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분을 믿어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갈 3:26-29)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처럼 복자체가 되어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자마다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축복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고 증거한 것입니다(갈 3:9).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요 4:22)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 세기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신학이 로마의 씨저인 콘스탄티누스로부터 나와 종교개혁을 한 마틴루터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죽이고 지금까지 그분을 믿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들이 모이는 회당들을 모두 불살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그들이 취한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었으며 그때부터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두 넘어왔으며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모두 없어져야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다는 대체신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종교개혁 이후 생긴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에게 이 신학이 뿌리박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있던 히틀러는 마틴 루터의 대체신학에 매료되어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야한다는 사상이 그의 마음 속에 뿌리 박히게 되어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 육백만을 죽이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나치당이 저지른 유대인 학살로 인해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들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전범들이 되어 한 사람도 남김 없이 붙잡혀서 모사드에 의해처형되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신학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자칭 유대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 필리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시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계 3:8-9)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약 1:20)고 증거했습니다. 마틴 루터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미워한 나머지 성을 내어 분을 풀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칠천 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셨느니라."(롬 11:1-4)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는 악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대 환란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하실 때 그들 중 남은자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지자 호세아가 증거했습니다:**"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호 5:16-6:2)**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카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루터가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을 데체신학을 주장히여 히틀러까지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게 하였는지 깨닫아야 합니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를 마음 속에 깊히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엡 6:10-11)
아멘! 할렐루야!